

경제동향검토위원회

OECD 경제동향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는 2004년 9월 13일 OECD 회원국인 캐나다 경제에 대한 검토회의(Annual Review)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경쟁체제의 도입, 여타 회원국의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및 벨기에가 주(主)검토국(examining country)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최근 캐나다의 경제동향 및 전망

OECD 사무국은 캐나다의 2004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2.8% 상승으로 예상되는데, 동 수치는 2002년의 성장률(3.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03년의 성장률(1.7%)에 비해서는 높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 사무국은 2005년에도 세계경제의 건인차 역할을 하는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하여 각국의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캐나다의 성장률을 3.3% 수준까지 높게 전망하였으며, 실업률은 2004년의 7.3%에서 2005년에는 7.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물가는 2004년에 0.9% 상승에서 2005년도에는 1.6% 상승으로 다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 순차입(net lending)은 2004년

1.2%에서 2005년에 1.3%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성장률(GDP)	1.9	3.3	1.7	2.8	3.3
물가(소비자)	1.8	1.9	1.7	0.9	1.6
실업률	7.2	7.6	7.6	7.3	7.1
정부 순차입*	1.4	0.8	1.2	1.2	1.3

주: * GDP 대비

회원국 대표들은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캐나다의 거시경제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 GDP 성장률이 3.5%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출갭(output gap)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캐나다 달러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급격한 평가절상으로 수출 등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으며, 현재 환율이 균형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2004년도 물가상승률(0.9%)에 대비한 2005년도 물가상승률(1.3%)을 고려해볼 때, 정부는 통화정책에서 다소 긴축적인 기초

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2004년 및 2005년도 정부차입이 GDP의 1.2~1.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은 중립적 입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2.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논의

가. 미국경제의 영향에 따른 수출산업의 취약성 확대

미국과의 지역적, 문화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캐나다경제는 본질적으로 미국경기와 밀접히 연관되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교역조건의 변화(미국 달러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화의 평가절상 등)에 따라 국내 수출산업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교역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OECD 사무국은 지적하였다.

〈표 2〉 미국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 10% 절상시 효과
(단위: %)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수출	-2.5	-0.5	-0.3	-0.3	-1.1
GDP	-1.2	-0.0	-0.0	-0.0	-0.3

주: * 연간 증가율

나. 여타 교역국과의 수출경쟁력 비교

미국 및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캐나다 국내기업은 멕시코 및 중국 등 신흥공업국과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제 이후 캐나다의 가장 강력한 미국 수출의 경쟁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주력산업이 유사한 성격(운송 및 관련 설비, 전자, 기계, 자원 관련 산업)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캐나다처럼 미국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멕시코 기업의 미국시장 점유 확대는 결국 캐나다 수출기업들의 시장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종래 노동집약적 제조업제품의 수출에서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제품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지역 등 여타 시장에서 캐나다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향후 캐나다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라고 회원국 대표들은 지적하였다.

3.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

가. 지방정부의 전력회사 구조개혁

OECD 사무국과 회원국 대표들은 현재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전력시장은 대체로 비경쟁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민영화를 통해 경쟁적 체제를 도입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전력부문은 비록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회원국에 비해 전력생산비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대부분 수력발전으로 인한 낮은 운영비용과 발전소 건설비를 공공자금으로 조달한 결과로 나타난 낮은 투자비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비용 측면을 감안할 경우, 캐나다 전력부문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표 3〉 각국간 평균 전기료 비교

(단위: 미국 달러/kwh)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0.13	0.08	0.06	0.05

특히 OECD 사무국은 전력산업 소매시장에 완전한 경쟁체제를 도입한 Ontario주 정부 및 Alberta주 정부의 사례를 통해 두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으며, 상기 두 정부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무더운 여름과 제한된 시설용량으로 도입 초기에 전력시장의 가격인상과 운영상 불안정(volatility)을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결국 전기료에 대한 가격상한(price ceiling)을 책정하는 등 제도도입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항공, 통신 및 방송부문의 경쟁체제 유도

동 회의 참석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비록 일부 소수 핵심분야(few key sectors)에 한정되어 있지만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외국인 소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규제가 경쟁촉

진 측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국내선에서의 운항권 제한의 철폐는 여행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통신 및 방송시장의 규제는 외국기업들로부터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전수를 막음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4. 기타 논의사항

OECD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물 자본의 축적과 보다 나은 인적자본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바, 전자를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한 감세 및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후자와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직장 및 성인교육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캐나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부채규모(GDP 대비)가 2002~03년의 44.2%에서 2005~06년에 37.8%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정부부채수준(70%대)과 비교할 때 재정 측면에서 충분히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상현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shwoo02@mofe.go.kr】